

4-10. 반촉성 오이 재배시 주요해충의 종합관리 체계 연구

김도익*, 김선곤, 박종대, 최형국, 마경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오이의 주요 해충인 오이총채벌레, 목화진딧물, 온실가루이의 종합관리를 위해 약제 시험 및 천적 방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이 주산지에서 살충제 살포횟수는 진딧물 4.0~4.8회, 온실가루이 3.3~4.6, 총채벌레 5.2~5.8로 지역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살균제를 포함한 총농약 살포횟수도 구레가 16회로 가장 적었다. 1월부터 6월까지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오이 주요 해충의 발생량을 누적 조사한 결과 세지역 모두 온실가루이의 밀도가 가장 높았다. 살충제 살포 형태별 해충 발생량은 단제살포 보다 혼용살포한 농가에서 더 많았으며 온실가루이의 발생량이 역시 가장 높았다.

정식전 입제혼화처리에 의한 해충의 밀도변화는 진딧물에 있어서는 이미 다클로프리드입제는 정식후 70일, 피메트로진입제는 60일까지 밀도를 억제하였고 총채벌레는 이미다클로프리드입제, 피메트로진입제가 50일까지 밀도를 억제하였으나 온실가루이는 처리 약제 모두 밀도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입제 처리 50일 후 방제를 위해 엽면살포하였을때 진딧물과 총채벌레에서는 처리 약제 모두 2주까지 밀도를 억제하였으나 온실가루이는 억제효과가 1주일을 넘기지 못하였다.

오이 재배시 정식전 이미다클로프리드로 토양혼화 처리하고 목화진딧물은 정식후 40일에 칠성풀잠자리붙이를 온실가루이와 오이총채벌레는 30일에 온실가루이좀벌과 애꽃노린재를 1주간격 3회 방사한 종합관리 시험에서 총채벌레는 77%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진딧물은 90%, 온실가루이는 66~77%의 방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종합관리구에서는 살균제 1회, 살충제 1회만 살포하였으나 관행방제구에서는 살균제 8회, 살충제 18회 살포하여 방제회수가 종합관리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